

2018년 3월 16일

emerics@kiep.go.kr

인도 2017/18년 3분기 성장률과 전망



- 2월 28일 인도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7/18년 3분기(10~12월) 인도 경제성장률은 7.2%를 기록함.
- 이는 화폐개혁 이전인 2016/17년 2분기 7.6%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로, 인도통계청은 2017/18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6.5%에서 6.6%로 상향조정함.
 - (수요측면) 고정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함.
 - 2017년 들어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고정투자가 전년동기대비 12.0%를 기록
 - 이는 기업의 생산·출하회복과 공공투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¹⁾
 - (공급측면) 제조업의 성장률 회복과 그동안 둔화됐던 건설업의 성장률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함.
 - 제조업과 건설업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1%, 6.8% 성장하면서 광공업이 6.8% 성장
 - 현금 거래가 많은 건설업은 2016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성장률 둔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

표1. 인도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성요소 (GDP 대비 비중)		2016/17				2017/18		
		Q1	Q2	Q3	Q4	Q1	Q2	Q3
GDP 성장률		8.1	7.6	6.8	6.1	5.7	6.5	7.2
수요	민간소비 (59)	8.3	7.5	9.3	7.3	6.6	6.6	5.6
	정부지출 (10)	8.3	8.2	12.3	31.9	17.1	2.9	6.1
	총고정자본형성 (32)	15.9	10.5	8.7	-2.1	1.6	6.9	12.0
	수출 (19)	3.6	2.4	6.7	10.3	5.9	6.5	2.5
	수입 (23)	0.1	-0.4	10.1	11.9	16.0	5.4	8.7
공급	농림수산업 (19)	4.3	5.5	7.5	5.2	2.7	2.7	4.1
	광공업 (30)	8.3	6.8	7.1	3.1	0.1	5.9	6.8
	제조업 (17)	9.9	7.7	8.1	5.3	-1.8	6.9	8.1
	건설업 (8)	3.0	3.8	2.8	-3.7	1.5	2.8	6.8
	서비스업 (51)	9.4	7.9	6.5	7.2	9.6	7.1	7.7

주: Q1(4~6월), Q2(7~9월), Q3(10~12월), Q4(이듬해 1~3월).

자료: CEIC (검색일: 2018.3.7.)

1) 2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문 29.3% 증가(중앙은행 Order Books, Inventories and Capacity Utilisation Survey (OBICUS): 제조업 부문, 123개 주요 기업을 대상)

- 화폐개혁과 단일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인도 경기가 다시 7%대 이상의 상승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²⁾
 - 2016년 11월 급격한 화폐개혁 단행은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을 초래했으나,³⁾ 2018년 2월 23일 기준 화폐유통 규모가 화폐개혁 직전의 99.2%까지 회복됨.
 - 화폐개혁과 함께 2017년 7월 전격 시행된 GST의 도입 전후로 위축되었던 제조업부문이 특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인도의 산업생산지수는 2017년 10월 전년동기대비 2.0%에서 11월과 12월 각각 8.8%, 7.1%를 기록했으며, 2017년 12월 Nikkei 제조업 부문 PMI는 54.7포인트로 최근 5년간 최고치 기록⁴⁾.
- 경기상승세에 힘입어 인도정부는 2018/19년 8%대의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유가 변동성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가 전년대비 평균 1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지고 있음.
 - 미국에너지정보국(EIA)은 올해 평균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 당 62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17년 12월 5.2%, 2018년 1월 5.1%를 기록했으며, 인도중앙은행(RBI)은 국제유가와 몬순(우기) 등을 감안하여 2018년 물가상승률을 5.1~5.6%로 전망
 - 원유 및 관련품목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와 유가보조금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가 우려됨.
 - 2018년 1월 원유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42.6%, 총수입이 26.1% 증가함에 따라 2013년 5월 이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
 - 유가보조금 규모는 GDP의 0.5%(2016/17년 기준)로 2018년 더욱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미 연준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인도 환율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인도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은 미미하겠으나 이로 인한 세계수출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가격하락 발생 시, 성장세에 있는 인도 철강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⁴⁾
 - 미국의 철강 수입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이며(알루미늄 2%), 이는 인도의 철강생산량의 4%, 철강수출량의 1% 수준
 - 2018년 경제지표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귀추가 주목됨.

EMERiCs

2) [화폐개혁] 불법자금과 위조지폐 척결을 위해 기존 인도 화폐공급의 86%를 차지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당해 말까지 신규발행되는 500루피와 2,000루피권으로 교환하도록 함. [GST]

3) 화폐개혁으로 2015/16년 4분기 9.1%에 달했던 성장률이 2017/18년 1분기 5.7%까지 하락

4) 2017년 4월~2018년 1월 인도 철강수출 전년동기대비 40.2% 증가(인도 JPC)

참고자료

Oxford Analytica, IHS, Times of India, Financial Express 등

(작성: 윤지현 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